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11. 11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英 경찰, 이민자센터 테러 '극우주의자' 소행 추정

- 11.5 英 경찰은 지난 10.30 도버港 이민자센터에서 발생한 소이탄(燒夷彈) 테러(부상 2)의 원인은 극우·극단주의 이념에 경도된 범인의 공격으로 추정되며, 공범이나 추가 위협은 없었다고 발표

* 당시 범인 「앤드류 리크」(66)는 이민자센터 공격 후 자살

미주

○ 美 법원, 플로리다 총격범 '종신형' 선고

- 11.3 美 플로리다州 법원은 지난 '18년 반자동 소총으로 무장 후 자신의 모교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34명의 사상자(사망 17, 부상 17)를 발생시킨 「니콜라스 크루즈」(24세)에 대해 '감형 없는 종신형'을 선고

* 同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전국적인 총기규제 요구시위 발생(150만여명 참가)

○ 美, 이란 '석유 밀수 네트워크' 제재 대상 지정

- 11.4 美 재무부는 이란혁명수비대 해외활동 조직인 '쿠드스軍'과 레바논 무장정파 '헤즈볼라'에 대한 테러자금 지원을 이유로 국제 석유밀수 네트워크* 관련 개인 6명, 17개 단체, 선박 17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

* 걸프만을 기반으로 UAE 저장시설을 활용, 원산지를 숨기기 위해 이란산 석유를 인도산과 혼합하고 해외판매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

○ 美軍, 군집드론 무력화 차세대 '드론 킬러' 개발

- 11.6 美軍은 새로 개발된 '고출력 전자파 장치'를 장착한 장갑차가 군집드론 공격을 무력화(추락)하는 영상을 공개하며, 차세대 '드론 킬러' 개발을 발표

* 또한, 美 해병대는 저공으로 침투하는 적 드론을 강력한 전자파로 무력화하는 '경해병 대공방어 통합시스템'(L-MADIS) 시험 운영 영상도 함께 공개

아 · 태평양

- 印尼, G20 정상회의 대테러작전에 軍·警 1만 8천명 투입
 - 11.7 언론은 印尼 정부가 이달 발리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재계 협의체 'B20 서밋(13~14)' 행사와 'G20 정상회의(15~16)' 기간 중 테러 대응을 위해 11일부터 정상회의 다음 날인 17일까지 軍·警 1만 8천명 투입을 발표
 - * 同 기간에는 발리의 주요 10개 도로에서는 차량 홀짝제가 시행되며, G20 정상회의 관련 물류 등을 제외한 화물차 운행을 제한할 예정

중 동

- 이란, 테러단체 지원 '캐나다 고위관리·기관' 제재
 - 11.3 언론은 이란 외무부가 자국 반정부 조직인 '무자헤딘-에-할크'(MKO) 지원과 자국민 테러·폭력행위 조장을 이유로 캐나다 국방장관·대법원장 등 8명과 언론사 1곳(캐나다 내셔널 포스트)을 제재하였다고 보도
 - * MKO(Mujahedin-e-Khalq Organization) : 프랑스에 본부를 둔 이란 반체제 조직
 - ** 이란 비자 발급거부 및 영토 진입금지, 이란 관련 은행계좌 폐쇄, 자산동결 등
- 이라크, ISIS 테러 대응을 위해 '징병제' 재도입 추진
 - 11.7 외신은 이라크가 ISIS의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18~35세 남성을 대상으로 '13년 폐지된 징병제를 재추진할 계획이며, 실제 징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보도
 - * 복무자에게 60~70만 디나르(약56만원) 상당의 수당 지급 검토

아프리카

- 소말리아, '알샤바브' 용어 사용 금지
 - 11.7 소말리아 정부는 테러단체 '알샤바브' 지칭 시 일탈 종파를 뜻하는 용어인 '카와리즈(Khawariij)'로 부를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하며, '알샤바브'(아랍어로 '청소년'이라는 뜻) 용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
 - * 소말리아 정부는 '15년에도 알샤바브를 '소말리아인을 학살하는 그룹'이라는 뜻의 소말리아어 약자 '우구스(Ugus)'로 부르는 등 알샤바브 용어 사용 지양

駐아프간 독일영사관 겨냥 자살폭탄테러

- '16.11.10, 23:05경 아프간 북부지역 최대 도시인 마자르-에-샤리프 소재 독일영사관 외곽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, 6명 사망, 100여명 부상 (피해자 대부분은 민간인)



〈테러사건 현장〉

- 테러범은 독일영사관 시설 외곽의 보호장벽으로 폭탄 적재 차량(트럭)을 돌진 후 폭발시켰으며, 이로 인해 인근 건물 일부가 붕괴되는 등 일대 주민 긴급 대피 상황 초래
- 사건 직후 탈레반 대변인은 사건 배후를 자처하면서, “중무장한 자조직의 요원들이 폭발물 적재 차량을 폭파한 뒤 독일영사관을 습격했으며, 쿤두즈州에 대한 美軍 공습*에 대한 보복이다”라고 주장
- * '16.11.3 美軍은 아프간 북부 쿤두즈州에서 탈레반 소탕을 위해 공습을 실시하였으며, 이 과정에서 민간인 33명이 사망하고 27명 부상
- 이후, 독일 외교부는 사건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, 美軍은 쿤두즈州 공습 당시 오폭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시인하고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 표명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美軍의 아프간 쿤두즈州 오폭사건('16.11.3) >

- (사건개요) '16.11.3 오전 아프간 주둔 美軍은 쿤두즈 지역 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 지도자 2명을 사살하기 위한 공습 과정을 전개했으나, 폭탄이 민가에 떨어져 (오폭) 민간인 33명 사망, 27명 부상의 인명피해 초래
- (美軍입장) 美軍은 사건 직후 성명에서 “탈레반이 민가를 방패 삼아 美軍과 아프간軍을 공격했다고 강조하면서도, 민간인 사망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”는 입장 표명
- (NATO) NATO는 트위터를 통해 “이번 공습은 쿤두즈에서 공격받는 아군 방어를 위해 美軍이 전개한 작전이었으며, 모든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”라고 강조
- (탈레반·지역민) 美軍이 민가를 공습해 탈레반 전사와 그의 가족 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희생을 당했다며 분노를 표출, 이에 대한 보복을 다짐